

講義評價를 실시하면서:個人別 사례(1)

—교수 강의평가 實施事例 ⑤—

蘇 英 燮

(全北大 産業工學科)

교수 강의평가 實施事例

1. 한신大學의 敎授講義評價制
2. 慶熙大學의 敎養科目 중심 講義평가제
3. 嶺南大 상경대학의 講義評價
4. 全南大 경영학과의 講義評價制 모색
5. 講義評價를 실시하면서:個人別 사례(1)
6. 교수 個人別 실시(2)

강의평가제를 실시하면서 얻은 경험과 느낌을 말하기에 앞서, 본인보다도 먼저 강의평가를 해 오신 여러 선배 동료 교수들이 있을 터인데 짧은 경륜의 사람이 이런 글을 쓰게 되고,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강의평가에 대하여 필자 스스로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끼기에 글을 읽는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릴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 다만 필자의 적은 경험이지만 이것이 강의평가를 실시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강의를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또한 필자의 고민과 부족함을 널리 알려 좋은

충고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필자가 하고 있는 講義評價가 초보 단계일 수도 있고, 지적하는 문제점이 경험 부족과 사려 깊지 못함에 기인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여러 선배 동료 교수들의 진솔한 조언을 기대하면서...

1. 講義評價를 실시한 背景

근래 들어 강의평가에 대한 학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의평가에 대한 찬반 양론과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강의평가를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은 때로 난처하기도 하다. 강의평가제를 절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자니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라 비난받을 것 같고, 하면 안 된다고 하자니 필자의 행동과 모순이 되고, “이것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강의평가를 실시해 왔는가를 돌이켜 볼 때, 특별한 당위성을 가져서거나 분위기를 탄 것은

아닌 것 같다. 필자가 대학에 부임한 것은 1991년이었지만 그 전부터 시간 강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데 큰 부담이 없어서, 종종 미리 강의를 준비하지 못하고 강의에 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1991년 1 학기를 마치고 2 학기 강의를 하는 도중에 수업 시간에 어떤 경리를 증명하다가 막혀서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쳤는데, 이 일에 대해 자책하는 마음으로 한동안 강의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게 되었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강의 준비에 대한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었다. 이때 내 마음에 “내가 학교에 다닐 때는 수업 준비 안 하는 교수를 비난하고, 몇 십 년된 강의 노트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을 때 흥분하였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내 손가락질을 받는 교수들 중의 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 자신만으로는 나의 성실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자신 이외에 나를 감시하는 체계로서 강의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심리적인 효과이겠지만 지금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는 강의 시간에 내가 이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긴장하게 된다.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필자의 연약함 때문에 시작한 강의평가가 다른 측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강의평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작하여 펜스레 무얼 하고있습네 하는 결포장만 잘 된 위선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다.

2. 評價方式 및 節次

강의평가를 처음 실시했을 때는 평가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필자가 맡은 과목 중 2 개 과목에 대하여 기말시험 시간에 이 과목에 대하여 고충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 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몇몇 학생들이 시험이나 원서 교재에 대한 불만을 적었을 뿐 호응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강의평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

민하던중 1992년 1 학기말쯤 학생회에서 제시한 강의평가 설문서를 접하게 되어서, 그 설문서 중 필자가 생각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설문지를 만들어 역시 기말시험 시간에 설문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때도 설문지 문항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한 경우는 드물고 그저 형식적인 평가(모든 문항에 대해 그저 그렇다라는 답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평가의 시점이 기말시험 시간이 되면, 시험에 대한 긴장 그리고 시험이 끝났을 때 오는 이완감 등이 어울려 설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기말시험을 피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1992년 2 학기에는 마지막 강의 시간에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작성을 하게 하였다. 이때부터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성의껏 평가에 임한 것을 설문에서 느낄 수 있었다.

아직은 제대로 틀이 잡혔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 하고 있는 강의평가의 방법을 소개하면, 먼저 강의 첫 시간에 이 강의는 학생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전달해 주고 보다 나은 강의를 위해 수강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며 좋은 점, 불편한 점들을 점검하여 평가를 해 달라고 고지를 한다. 지난번 강의평가에서 나온 불만 사항에 대해 들려주고, 그 중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은 수용불가의 사유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잘 지켜지는 지도 점검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경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시간을 내어 강의에 대해 묻기도 하고, 학기말이 되면 마지막 강의 시간에 설문지를 주어 평가를 하게 하고 평가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때 분석은 점수로 평가하게 되는 부분에서 수강생 전체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서술형 응답의 내용을 보고 일반적 경향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분석된 결과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대안을 세워 다음번 강의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현재의 방법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조언을 원하고 있다.

3. 設問의 內容 및 結果

강의평가에 사용된 설문지는 다음의 15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부정 1, 2, 3, 4, 5 긍정)의 5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6 번, 7 번, 10번, 14번, 15번 문항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

<강의에 대해>

1. 본 강의의 진행이 강의계획서 또는 강의 내용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 강의 내용이 당신이 이해하기에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강의에 사용된 교재는 본 강의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강의의 평가(시험, 리포트) 방식 및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이 강의가 여러분의 학업 및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위 2~4항목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셨다면 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강의 교수자에 대해>

7. 본 강의의 교수자의 강의 방식 및 강의 전달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불만족스럽다면 생각나는 개선책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8. 본 강의의 교수자의 강의에 대한 성실성(강의 준비, 진행, 시간엄수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9. 본 강의의 교수자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에 만족하십니까?
10. 위 8~9항목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셨다면 그러한 견해를 갖게 된 이유나 동기를 적어 주시면서 저의 빈화에 좋은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수강생에 대해>

11. 본 강의를 수강하는 당신의 준비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본 강의에 대한 학우들의 학습 분위기(태도)는 어떠하셨습니까?
13. 본 강의가 진행되는 기본 조건(수강 인원, 강

의실 크기 등)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11~12항목에 부정적 견해를 가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15. 본 강의에 대해, 교수자에 대해 또는 이후 수강하게 된 학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이상의 설문지로 그동안 평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같은 문항에 대하여 상반된 반응(한 그룹은 1 또는 2로, 다른 그룹은 4, 5로 양분된 응답을 보인 경우)이 많아서 이를 반영하기가 곤란하였으나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강의평가를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응답의 분산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강의평가라는 제도가 건설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항목별로 보면 강의부문에서 교재나 평가 방식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교재가 원서이고 시험을 자주 실시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학생들이 자기 편의 위주로 강의를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의자에 관한 부문에서는 부정적 응답을 한 경우의 원인이 강의가 재미없다거나, 지루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 강의를 즐겁고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아직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한편, 수강생에 관한 항목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응답이거나 중립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기준이 없거나 지나친 겸양이 아닌가 생각되며, 강의평가를 여러 번 실시한 학년에서도 실시 경험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와 이들의 평가가 정확한 것이라면 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의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다.

4. 현단계의 問題點 및 克服方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필자가 강의평가를 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고 강의평가를 모든 대학에서 실시해야 하느냐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보다 나은 강의평가가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강의는 교수와 학생의 共同參與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강의평가는 강의자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른 강의평가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평가의 내용에 성실히 임해 준다는 소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강의의 방법이나 진도의 설정, 교재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강의의 전 분야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교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강의를 준비한다는 적극적인 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현재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보면(이는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만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학점을 잘 주는 과목, 듣기 쉬운 과목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강의평가지에도 교재나 시험에 관한 불만이 무조건 원서이기 때문에, 시험을 자주 보기 때문이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강의의 전반에 참여를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편리를 위해 강의의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쉽고, 이는 강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학생들은 강의평가를 하자고 외치면서도 막상 강의평가에 자신들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할 때는 슬그머니 발을 빼곤 한다. 필자가 지난 학기말에 이번 학기에 강의하게 될 과목 중에서 그동안의 강의평가 내용 중 교재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 강의를 듣게 될 학생들에게 교재 선택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의견을 개진한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학생은 무응답이었다. 교재를 현행대로 써도 좋다는 것인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 이번 학기에도 원래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의 평가에는 어떤 불만이 나올지 궁금하다. 따라서 올바른 강의평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를 하게 되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훈련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필자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 강의평가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한 制度的裝置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가 수강신청

을 학기중—前學期 말이나 학기초—to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면서 강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나 교수와의 강의에 대한 교류가 없이 선배들의 권유나 풍문에 의해 수강 과목을 결정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올바른 강의 선택을 위해서는 수강 신청을 방학중에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강의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교수들도 강의에 대해 학생들과 충분한 교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강의평가 후의 以後管理이다. 즉, 강의평가를 통해서 잘했다, 못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평가 후에 다음의 개선된 강의를 위해서 현재의 평가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교수가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질책하는 분이 계시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강의평가에 대한 사후관리나 개인의 역량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같이 연구하고 좋은 대책을 수립하여 알릴 수 있는 모임이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의 경우에는 강의평가를 하면서도 설문지 방법이나 분석의 방법이 있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시간과 정보 및 경험의 부족으로 아직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원고를 요청하며 보내 준 『大學教育』 책자에 실린 講義評價制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공감과 새로운 방법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임이 발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5. 制度 定着의 전망과 과제

여기에서는 강의평가제를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는 문제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그동안 강의평가제는 몇몇 교수들과 학과에서 소규모로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경희대학교, 한신대학교,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단과대학 또는 학교 전체에서 강의평가제를 실시하거나 실시를 발표하였으며, 조만간 모든 대학이 강의평가제를 실시하게 되

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렇게 강의평가제를 모든 대학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로는 강의평가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 간의 갈등이다. 현재 상당수의 교수들이 강의평가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사제기간에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강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교수들이 강의평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우리 대학내에 강의평가제가 도입된 경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의평가제가 대학내에 등장하여 여론을 형성하게 된 것은 평가를 받게 되는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학생들에 의해서였다. 이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어 보수 성향이 강한 교수사회의 지지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강의평가를 주장하는 학생들도 강의평가의 진정한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강의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이 교수를 평가한다는 평가 자체에 주안점을 두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어 교수들의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講義評價制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교수들은 학생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당혹스러울 것이고, 학생들은 교수들이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진정한 의미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의평가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制度의 惡用에 대한 우려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교수제임용 제도의 악용 사례를 여러 번 접해 본 필자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유용한 칼이라도 강도의 손에서는 흉기가 되듯이 아무리 의미있는 제도라 할지라도 악용의 소지가 있을 때는 원래의 좋은 의도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의평가제를 악용

하는 경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재단이나 학교 당국이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교수를 축출할 목적으로 강의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이고, 일부 학생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특정 교수를 매도할 목적으로 강의평가의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후자의 경우는 강의평가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익숙해지면 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 확실하고 학생의 순수함을 믿는 마음이 있기에 큰 문제라고 보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는 장담할 수 없다.

셋째로는 그동안 우리 나름의 강의평가에 대한 경험과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우려이다. 강의평가의 방법, 평가 항목의 설정 등은 학과 또는 과목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강의평가제를 실시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직도 시행착오중에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오늘도 종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설문에 응답을 하던 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 시험 문제는 왜 항상 똑같아요?”라고 말했다. 그 학생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지 모르나 그 말을 듣는 필자는 “과목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는데 왜 같은 질문을 해요?”라고 묻는 것 같기도 하고, “3년 동안 동일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학생들이 지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다. 3년 동안 강의평가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여러 번 수정을 했음에도 아직도 시행착오를 하고 있으니, 강의평가제가 전면 실시된다면 교수들의 대다수가 시행착오의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 강의평가제는 講義의 質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당위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실시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고,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조만간 모든 대학에서 실시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대책을 세운 뒤에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의평가제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

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평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강의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이미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 학과 또는 교수들의 실시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여 교수들 스스로가 강의평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발적으로 강의평가제를 도입하도록 점진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하며, 학생들도 모의 평가나 시범 평가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강의평가에 대한 훈련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도의 악용소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강의평가제가 대학내에 정착될 때까지라도 인사에 반영하는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보며, 강의평가의 결과를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강의평가 방법의 끊임없는 개선을 위하여 계열별, 학과별, 과목별 특성에 맞는 평가 항목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킬 기구를 만들고, 이곳에서 제안된 방법들을 실제로 실시해 보고 그 결과를 피이드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빠른 시일내에 강의평가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끝으로 강의평가제가 원활히 실시되려면 교

수들의 강의 시간에 대한 부담도 현재보다는 현저히 줄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의 경우는 주당 평균 15시간을 강의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이면 강의 준비, 강의, 학생면담 등으로 하루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 연구를 위한 시간을 내기가 무척이나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강의평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 결국 눈앞에 보이는 급박함으로 연구는 전혀 손을 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이야기를 마치면서 필자의 견해는 교수의 입장에서만 강의평가를 서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講義의 質은 교수만 노력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의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려는 자세와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높은 참여의식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대책 또한 강의평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강의평가가 대학내에서 갈등과 불만의 씨앗이 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올바른 모습으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빌어 본다. ■